

2009학년도 2차 모의논술고사

채점평 및 결과 분석

I. 2차 모의논술고사 채점평

2. 인문계 채점평

이번 2차 인문계 모의논술은 설득력 있고 시사성 있는 주제 아래, 학생들의 사고력과 분석력을 주로 평가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채점결과 이러한 출제의도는 어느 정도 그 목적을 달성했다고 본다. 다만 출제의도에 따를 때, 문제의 난이도는 <논술 II>가 <논술 I>에 비해 다소 높게 출제가 되었는데, 경우에 따라 오히려 <논술 II> 성적이 <논술 I>보다 높은 학생들이 상당수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논술 II>에서, 특히 <논제 II-1>에서 출제의도와는 다소 빗나가는 답안을 쓴 학생들이 대다수여서 평균적으로는 <논술 II>의 성적이 <논술 I>에 비해 저조했다. 그러나 지난 번 1차 논술에 비해 이번에는 백지답안을 쓴 학생들이 현격하게 줄어든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논술 I>의 경우, 전체적으로 제시문이 평이하고 교과서 지문이 많은 데다 논제가 주로 제시문의 이해를 묻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대부분의 답안이 충실한 편이었다. 다만 핵심적인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의견이 독창적으로 제시된 경우는 드물어 많은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는 <논제 I-1>에서 두드러졌다.

<논제 I-1>은 각 제시문을 두 관점으로 나눈 후 그 차이점에 대해 논술하라는 것이다. 여기서 대부분의 학생이 두 관점으로 잘 분류는 했다. 그러나 차이점에 대해 진지하게 논술한 답안은 거의 없었다. 논제는 분명 차이점을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논술'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논술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주관적 견해가 들어가 이를 논리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그러나 대부분이 이를 반영하지 못한 채, 제시문의 내용을 단순 요약하는 데 그치고 자신의 독창적인 의견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이에 비해 <논제 I-2>에 대한 답안은 상대적으로 논제에 충실해 논술문의 형식에 맞추어 충실하게 쓴 답안이 많았다. 여기서는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라는 것이 명시되어서 그런지 자신의 의견은 대부분 서술했다. 그러나 문제는 앞의 단락과 논리적으로 연결해 쓴 답안이 많지가 않았다는 점이다. 즉 논제는 대중문화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극복방안을 논술하라는 것인데, 지적된 한계와 그 대안이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된 답안이 의외로 많았다. 더군다나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대부분 자신의 독창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들을 기계적으로 나열한 경우가 많아서 좀 더 깊은 숙고를 통한 치밀한 답안 작성이 요구된다.

<논제 I-3>은 제시문 <마>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쓸 수 있는 문제인데 반수 이상의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답안을 작성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나머지 상당수 학생들은 제시문 <마>의 핵심을 잘 못 이해한 경우가 많아서 제대로 된 답안 작성에 실패를 했다. 제시문 <마>의 핵심은 문화일반의 소통성과 역동성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를 마치 미국문화라는 한 특정문화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논술 II>는 제시문이 모두 교과서 밖의 것이고 내용도 전문적이어서, 학생들이 정확히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의외로 상당수의 학생들이 제시문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논제에 답을 했다. 다만 예외가 된 것은 제시문 <다>이다.

제시문 <다>는 비록 피에르 부르디외라는 한 사회학자의 이론으로서 고등학생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제시문, 특히 제시문 <가>와의 연관성을 고려해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충분히 이 글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제시문 <가>의 기본 주장이 경제적 자본과 교육이라는 문화적 자본이 일치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내용인데 반해, 제시문 <다>는 정확히 그 반대의 주장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을 파악하라는 것이 출제자의 의도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 글의 논지를 출제자와는 다른 관점에서 다소 어긋나게 바라보고 있다.

제시문 <다>의 핵심을 많은 학생들이 '차이'에서 찾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차이를 계급적 차이 내지는 계층화와 연관지어 이해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제시문의 필자는 바로 사회적 공간에서의 차이를 분명히 경제적 소득에 따른 계급적 차이와는 엄격히 구별하고 있다. 사회는 경제적 소득에 따라 계층화된 구조로서가 아니라 문화적인 요소가 결부되어 의외로 복합적인 양상을 띠는 것이다. 결국, 사회는 오직 경제적 잣대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요소까지 포함되어 다양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 그 초점이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이와는 반대로 이해해 제시문 <다>를 마치 교육양극화를 초래하는 고착화된 계층적 차이를 정당화하는 이론으로 해석했다. 결국, 이러한 제시문의 불충분한 이해로 인해 대다수가 <논제 II-1>에 대한 답안을 기대에 못 미치게 작성했다. 이는 제시문 <다>를 다른 제시문들과 연관지어 총체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제시문 <다>를 너무 피상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생긴 결과이다.

이러한 경향은 <논제 II-2>에도 이어진다. <논제 II-2>는 제시문 <라>의 주어진 표를 근거로 제시문 <나>에서 제기된 이론의 타당성을 평가하라는 문제이다. 대다수가 제시문 <라>의 표와 제시문 <나>를 제대로 이해는 했다. 그러나 문제는, 소득불평등도 개념과 관련해 제시문 <나>의 소득불평등도 개념과 논제에서 제시한 소득불평등도 공식상의 수치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못했다는 것이다. 즉, 제시문 <나>에서 소득불평등도가 높다는 것은 단순히 그 지수가 수치상으로 높다고 수학적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 내용상에서도 소득분배의 구조가 악화되어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논제에서 제시한 소득불평등도 공식은 수치가 낮을수록(높을수록) 소득불평등도는 더 악화됨(개선됨)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 내용상에서 이해해야 한다. 이는 물론 상식과는 다소 어긋나는 것이기는 하지만 표를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 상당수의 학생들이 논제의 공식에서 단순히 수치가 낮아진 것만으로 소득불평등도가 개선된 것으로 단순하게 해석해

출제자의 의도와는 반대로 논제에 답을 했다. 이는 <논술 II> 전체의 제시문의 일관된 흐름을 총체적으로 통찰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지엽적인 곳에 집중해서 생긴 문제이다. 물론 학생들의 이러한 혼동은 충분히 이유 있는 혼동이기는 하다. 따라서 비록 출제자의 의도와는 달리 답을 했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일관된 답안을 작성했을 경우 채점시 이는 고려가 되었다.

<논제 II-3>은 특정한 답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학생들의 열려진 사고를 평가하는 그야말로 논술의 취지를 잘 살린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해 예상보다는 많은 학생들이 정확하고도 치밀한 분석을 토대로 자기 나름의 논지를 잘 전개해 나갔다. 아마도 이 문제가 우리나라의 사교육의 문제를 다루는 등, 자신의 현재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해서가 아닌가 여겨진다. 따라서 독창성과 분석력이 돋보이는 창의적인 답안도 간간히 눈에 띄었지만, 대다수는 어떤 정형화된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유사한 답안들이 의외로 많았다. 이는 고등학생이라는 한계도 있겠지만, 논술은 어떤 규범적이고 사회 통념에 부응하는 모범적인 답안만을 써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작용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다른 한편으로 이런 유형의 문제에는 이런 식으로 답한다는 기계적인 암기식 사고가 개입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논제는 전체적인 평균점은 높지만 고득점한 답안은 의외로 적었다.

이러한 부분적인 불충분성에도 불구하고 이번 논술은 지원한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무난하게 답안을 작성했다고 했다고 평가되며, 그 수준도 비교적 높다고 생각된다. 다만 일부학생들의 경우 원고지 작성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맞춤법에 어긋나는 표현을 한 경우가 있어서 눈에 거슬렸으며, 특히 정해진 원고지 자수를 지키지 않아 감당당한 사례가 상당수 있으니 이 점 유의했으면 한다.

2. 자연계 채점평

2009학년도 수시 입시 준비를 위한 이번 제 2차 자연계 모의논술고사는 논술I과 논술II로 나뉘어 각각 세 개의 논제, 총 여섯 개의 논제로 출제되었다. 주어진 제시문과 논제들은 현재 사회적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는 주제나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의 해결과 관련된 것들이었는데, 이는 고등학교 교과과정의 기본적 개념 해석 및 활용도를 측정하고, 수험생들의 논리적 추론력과 수리적 능력으로부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통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었다.

논술 I은 수학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 서술형식의 답변을 요구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논제 I-1>은 체지방의 개념과 측정원리로 부터 남녀의 체지방 측정값이 다르게 나오는 이유를 논술하는 것이고, <논제 I-2>는 산소 해리 곡선의 의미를 이해하고 운동 전, 후에 산소 해리 곡선의 형태가 달라지는 이유를 논술하는 것이었다. <논제 I-3>은 세포 분열 전기에 상동 염색체 사이의 교차에 의해 새로운 대립 유전자를 갖는 생식 세포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의 이해 여부를 묻는 논술이었다.

채점 결과 <논제 I-1>에서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문제에서 제시한 내용을 재인용하는 정도에 그쳤고, 논리적인 추론을 전개하지 못 하였다. 몇몇 학생들은 잘 못된 논리전개임에도 불구하고 정답과 유사한 결론에 도달하기는 하였으나, 답안의 전개 과정이 논리적이지 못 하였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논술I 중에서 I-1 문항의 점수가 가장 낮았던 것으로 보아 이러한 형태의 문제에 학생들이 익숙하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논제I-2>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큰 어려움 없이 논술을 전개하였으며, 간혹 산소 해리 곡선의 의미를 잘 못 이해하여서 논지 전개에 오류가 있었던 답안도 있었지만, 논술I에서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기록한 문항이었다. 한편, <논제 I-3>에서는 정답에 가까운 답안을 비교적 용이하게 얻은 학생들이 많았으나, 염색체 교차의 기본 개념이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 정답을 제대로 유도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었다.

논술 II에서는 물질의 물성에 관한 수학, 과학적 개념에 대한 이해도 및 적용, 논리적 해석 능력 등을 묻는 문제를 출제하였다. <논제 II-1>은 물질파의 파장 및 극대값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하려 하였고, <논제 II-2>는 크로마토그래피의 기본 원리인 물질의 용해와 확산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논제 II-3>은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포도당에 관한 내용으로, 화합물의 실험식을 어떻게 구하는지에 관한 논리적 설명을 요구하는 문제로 구성되었다.

<논제 II-1>에서는 물질파의 정의 및 삼각함수의 미분 과정을 잘 못 이해하고 있어서 감점을 받은 학생이 다수 있었으며, 올바른 계산을 한 뒤에 극대값의 정확한 의미를 몰라서 잘못된 결론에 도달한 학생들도 있었다. <논제 II-2>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문제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상당히 논리적인 답안을 작성하였으나, 문제에서 요구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기술하지 않고 일반적인 내용만을 기술하여 감점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논제 II-3>은 포도당의 실험식을 구하기 위한 방법을 기술하도록 요구하였으나, 많은 학생들이 이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포도당의 구조를 완성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올바른 답을 한 학생이 매우 적었다.

1차 논술에 비해 비교적 잘 다듬어진 논술 답안들이 많아지기는 했지만, 1차 논술 답안 채점에서 발견되었던 것과 유사한 문제점들은 여전히 눈에 띈다. 예를 들면, 최종적인 답은 올바르게 제시하였지만 풀이과정을 생략하였거나 간단하게 기술한 경우, 논리적인 전개가 맞지 않으면서도 결론만 올바르게 기술한 경우, 문제에서 요구한 내용에 대한 언급 없이 기존에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을 정리하여 기술한 답안들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자연계열 통합형 논술은 다양한 시각과 학문 영역을 통합한 논제가 제시되며, 문제에서 요구한 내용에 맞게 논리적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논술을 전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논술은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는 형태의 글짓기가 아니라 과정상의 논리적 전개를 중시한다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논술에서는 핵심을 포착한 명확한 서술이 필요하며, 불필요한 수사나 반복적인 표현, 불명확하거나 논리적 비약이 있는 답안은 피하여야 한다. 특히, 수리적 해결을 바탕으로 하는 논제들은 일부 실수가 있어 최종적인 답이 올바르지 않더라도 중간 풀이과정이 타당하게 제시되어 있으면 상당한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적절한 풀이과정을 제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II. 2차 모의논술고사 채점 결과 분석

1. 응시자 현황

- 1) 전체 지원자는 인문계 768명(68.6%), 자연계 352명(31.4%)으로 총 1,120명임
- 2) 전체 응시자는 인문계 624명(71.0%), 자연계 144명(29.0%)으로 총 879명임
- 3) 전체 결시자는 인문계 144명, 자연계 97명으로 총 241명임
- 4) 전체 응시률은 78.5%로, 인문계 응시률(81.3%)이 자연계 응시률(72.4%)에 비해 높음

<응시자 현황>

	지원자		응시자		결시자		응시률
	명	(%)	명	(%)	명	(%)	%
전체	1120	(100.0)	879	(100.0)	241	(100.0)	78.5%
인문	768	(68.6)	624	(71.0)	144	(59.8)	81.3%
자연	352	(31.4)	255	(29.0)	97	(40.2)	72.4%

2. 모의논술 채점 결과

- 1) 인문계 평균점수는 77.27점(변환평균 점수: 77.47점), 자연계 평균점수는 80.67점(변환평균 점수: 80.26점)으로 인문계가 자연계에 비해 더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파악됨
- 2) 인문계의 경우 상위 25%까지의 점수는 81.67점, 50%는 77.42점, 75%는 73.00점이고, 논술 우선선발 비율인 30%까지의 점수는 80.83점임
- 3) 자연계의 경우 상위 25%까지의 점수는 84.83점, 50%는 81.00점, 75%는 76.33점이고, 논술 우선선발 비율인 30%까지의 점수는 83.83점임
- 4) 인문계 논술 문제 중 논제 I -1의 평균 점수(81.32점)가 가장 높고, 논제 II -3의 평균점수(73.71점)가 가장 낮음
 - 난이도: 쉬움 어려움
I -1 < I -2 < I -3 < II -1 < II -2 < II -3
- 5) 자연계 논술 문제 중 논제 I -2의 평균 점수(88.81점)가 가장 높고, 논제 II -3의 평균점수(71.53점)가 가장 낮음
 - 난이도: 쉬움 어려움
I -2 < I -3 < I -1 < II -1 < II -2 < II -3

<모의논술 점수 현황 - 원점수>

계열	논제	N	원점수				백분위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25%	30%	50%	75%
인문 계열	I - 1	624	81.32	8.39	40	95	88	86	83	80
	I - 2	624	81.07	8.34	50	95	88	85	80	78
	I - 3	624	78.24	9.53	40	95	85	85	80	70
	II - 1	624	75.40	10.60	20	96	83	80	75	70
	II - 2	624	73.91	11.20	20	97	85	81	75	60
	II - 3	624	73.71	12.28	0	95	85	81.5	75	60
	총점	624	77.27	6.90	50.83	92.50	81.67	80.83	77.42	73.00
	(평균)	624	463.65	41.39	305	555	490	485	464.5	438
자연 계열	I - 1	255	81.68	6.79	60	97	86	85	83	78
	I - 2	255	88.81	9.41	60	100	96	95	90	84
	I - 3	255	85.90	14.47	60	100	100	100	92	72
	II - 1	255	79.75	13.40	0	100	90	88	80	70
	II - 2	255	76.34	10.08	60	98	85	83.2	75	68
	II - 3	255	71.53	10.14	60	95	80	76.2	70	60
	총점	255	80.67	6.50	63.83	96.83	84.83	83.83	81.00	76.33
	(평균)	255	484.01	39.02	383	581	509	503	486	458

<모의논술 점수 현황 - 변환점수>

계열	논제	N	배점	변환점수				백분위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25%	30%	50%	75%
인문 계열	I - 1	624	20	16.26	1.68	8	19	17.6	17.2	16.6	16
	I - 2	624	15	12.16	1.25	7.5	14.25	13.2	12.75	12	11.7
	I - 3	624	15	11.74	1.43	6	14.25	12.75	12.75	12	10.5
	II - 1	624	25	18.85	2.65	5	24	20.75	20	18.75	17.5
	II - 2	624	15	11.09	1.68	3	14.55	12.75	12.15	11.25	9
	II - 3	624	10	7.37	1.23	0	9.5	8.5	8.15	7.5	6
	총점	624	100	77.47	6.84	47.00	92.45	81.75	80.95	77.50	73.43
자연 계열	I - 1	255	20	16.34	1.36	12	19.4	17.2	17	16.6	15.6
	I - 2	255	15	13.32	1.41	9	15	14.4	14.25	13.5	12.6
	I - 3	255	15	12.89	2.17	9	15	15	15	13.8	10.8
	II - 1	255	15	11.96	2.01	0	15	13.5	13.2	12	10.5
	II - 2	255	15	11.45	1.51	9	14.7	12.75	12.48	11.25	10.2
	II - 3	255	20	14.31	2.03	12	19	16	15.24	14	12
	총점	255	100	80.26	6.34	63.75	96.55	84.25	83.32	80.45	76.10

6) 논제간 상관 관계

- 총점과의 상관이 가장 높은 것은
인문계의 경우 논제 II -3(.721)이고,
자연계의 경우 논제 II -2(.661)임
- 논제간 상관을 보면,
인문계의 경우, 논제 II -2와 논제 II -3의 상관이 .528로 가장 높고,
자연계의 경우, 논제 II -2와 논제 II -3의 상관이 .403로 가장 높음

<논제간 상관 관계>

계열	논제	I - 1	I - 2	I - 3	II - 1	II - 2	II - 3	총점
인문	I - 1	-						
	I - 2	.489**	-					
	I - 3	.465**	.520**	-				
	II - 1	.335**	.304**	.317**	-			
	II - 2	.286**	.276**	.297**	.382**	-		
	II - 3	.265**	.259**	.290**	.427**	.528**	-	
	총점	.650**	.650**	.677**	.688**	.707**	.721**	-
자연	I - 1	-						
	I - 2	.329**	-					
	I - 3	.161**	.256**	-				
	II - 1	.197**	.149*	.171**	-			
	II - 2	.299**	.290**	.205**	.291**	-		
	II - 3	.104	.308**	.172**	.260**	.403**	-	
	총점	.485**	.600**	.617**	.620**	.661**	.609**	-

** p< .01, * p< .05